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리라
(잠언 16:3)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이종국

다함께 성경을 배웁시다

95년도 하반기 성경연구원 8월 27일(주일) 개강, 6개 부문 총 19개반

95년도 하반기 성경연구원이 오는 8월 23일(주일) 오후 3시 15분 갈릴리홀에서 개강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된다.

전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있게, 체계있게 공부하여 생활에 적용하므로 천국일꾼으로 봉사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토록하기 위해 늘 봄과 가을에 학과를 개설하여 성공공부를 실시하여 오고 있다. 성경연구원의 공부는 모든 충현교인(학력, 연령, 신급, 직분의 제한 없음)에게 열려있을 뿐만 아니라 타교인이라도 성경을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입학할 수가 있다.

성경연구원 하반기 교육은 직분자 양육, 주간성경공부, 제43기 교사양성부, 제13기 찬양대원 양성부, 제3기 교사연장교육, 제3기 양육훈련으로 크게 6개 부문

으로 나뉘어져 있다.

직분자 양육부문은 구역장반, 권사반, 안수집사반의 3개반으로, 주간성경공부는 6개반, 제43기 교사양성부는 주일반과 화요일반으로, 양육훈련반은 7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교회학교 교사나 찬양대원으로 봉사하려고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사양성부와 찬양대원 양성부를 수료해야 하며 교사연장교육도 1990년 이전에 임명된 교사들을 위한 재교육 과정이다.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복이다. 이런 것을 알고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의 시간을 내어 성경공부를 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는데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각 부문별 시간 및 장소는 다음과 같다.

직분자 양육(9/3 ~ 12/9, 14주)

· 구역장반(서리집사, 권찰 포함)			
매주 수요일	오전 12:00 ~ 오후 1:00	갈릴리홀	신성종 목사
· 권사반			
매주 수요일	오후 1:00 ~ 2:00	갈릴리홀	성봉환 목사
매주 수요일	오후 2:00 ~ 3:00	갈릴리홀	<기도회>
· 안수집사반			
매주 수요일	오후 8:00 ~ 9:00	교육관 109호	조동원 목사

주간성경공부(9/3 ~ 12/9, 14주)

· 신약개론반			
매주 화요일	오전 10:00 ~ 11:00	교육관	장우천 목사
· 레위기반			
매주 화요일	오전 11:10 ~ 12:10	교육관	최영찬 목사
· 중세교회사반			
매주 목요일	오전 10:00 ~ 11:00	교육관	김동석 목사
· 여호수아반			
매주 목요일	오전 11:10 ~ 12:10	교육관	윤삼중 목사
· 이단종파연구반			
매주 목요일	오전 11:10 ~ 12:10	교육관	장정철 목사
· 마태복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8:30	교육관	정광욱 목사

제43기 교사양성부(9/3 ~ 96.1/14, 20주)

· 주일반 매주 주일	오후 3:00 ~ 4:40	교육관 307호	과목별 강사
· 화요일반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8:40	교육관 307호	과목별 강사

제13기 찬양대원 양성부(9/3 ~ 11/26, 13주)

· 주일반 매주 주일	오후 3:00 ~ 4:45	베다니홀	과목별 강사
-------------	----------------	------	--------

제3기 교사연장 교육(9/3 ~ 12/3, 14주)

· 주일반 매주 주일	오후 3:00 ~ 4:45	교육관 301호	과목별 강사
-------------	----------------	----------	--------

제3기 양육훈련

· 제1기 A반	매주 목요일 오전	교육관	장우천 목사
· 제1기 B반	매주 목요일 오후	교육관	윤삼중 목사
· 제2기	매주 화요일 오후	교육관	최영찬 목사
· 제3기 A반	매주 목요일 오전	교육관	장봉생 목사
· 제3기 B반	매주 목요일 오후	교육관	김희수 목사
· 제3기 C반	매주 화요일 오전	교육관	김동석 목사
· 제3기 D반	매주 화요일 오후	교육관	한용관 목사

안수집사 여름수련회

안수집사 여름수련회가 8월 21(월) ~ 23일(수)까지 강원도 설악산에서 열린다. '바른 생활 바른 믿음'이란 주제하에 안수집사 지도 조동원 목사를 강사로 열릴 본 수련회를 통해 안수집사들의 주님과 교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재 확인하고 상호간의 단합과 친교의 시간이 될 것이다.

학습 및 세례식

9월 1일(금)오후7시 갈릴리홀에서

교회는 95년도 5차 학습 및 세례식을 오는 9월 1일(금) 오후 7시 갈릴리홀에서 갖는다. 2개월에 한번씩 실시하는 학습 및 세례식은 금년들어 4번째로 학습, 세례, 유아세례, 입교 및 개종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8월 27일까지 교구 담당 교역자에게 신청하고 8월 31일(목) 오후 7시 교육관 307호에서 실시하는 예비교육과 문답을 받아야 한다.

9월 3일(주일)에는 주일 I, II, III, IV부 예배시 성찬식을 거행한다.

중·고등부 선교 수련회

8월 13일-16일

중·고등부 면려회 선교부와 천교 기도회원들의 여름수련회가 8월 13일(주일) ~ 16일(수)까지 충남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에 소재한 해성교회(담임교역자 송인섭 전도사)에서 열린다.

중등부 20명, 고등부 30명 정도가 참여할 선교수련회에는 고등부 지도인 한근수 목사와 새가족위원회 부지도 한영준 전도사 및 중고등부 교사 6명이 참여한 다.

회계감사, 8월27일까지

95년도 상반기 감사를 아직도 받지 않은 부서는 8월 27일 까지 반드시 마쳐야 한다. 회계감사는 매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선교관 403호 감사위원회실에서 실시한다.

앞으로 열릴 여름행사

교회학교

청년1부 8.14~16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충현기도원 김동석
장년1부 8.14~15	생활 속에 천국을 이루자	충현기도원 이한수
장년3부 8.14~15	생활의 자세가 문제다	갈릴리홀 정남장영철
영어교육부 8.14~16	Celebrating our Christian Independence	충현기도원 로봉린
청년2부 8.21~22	인애의 삶	갈릴리홀 김지찬

찬양대

임마누엘 8.13 ~ 16	거제도 에스더수양관	현상민 목사, 장기범 교수
할렐루야 8.14 ~ 16	용인 벨엘센터	김영준 집사
아 멘 8.14 ~ 16	양평기술산업연수원	조동원 목사, 최광덕 집사

군전도회
교회당 헌당예배 참석

전도위원회 군전도회에서는 그동안 지원하여온 육군1사단 11연대의 교회당이 완공되어 지난 8월 5일 헌당예배를 드리게 됨에 따라 군전도회원 30여 명이 참석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며 기쁨을 나누었다.(사진, 헌당예배를 마치고 교회당 앞에서)

또한 동사단 포병대대의 교회당 신축을 위한 기공예배에 참석하기도 했는데 군전도회에

서는 이 교회당 신축에도 지원하게 된다. 군전도회는 금년에 4개 정도의 군 교회당 신축에 지원할 계획이다.





충현강단

● 요한계시록 강해 47 ●

천사와 주님의 증거

(계 22:6-21)

오 늘로 요한계시록 강해가 끝이 납니다. 그동안 요한계시록 강해를 열심히 경청해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라고 하신 1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 천사의 증거

첫째로 천사의 증거의 성격이 나옵니다. 6절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일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지는 영원히 참되고 신실하신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먼 훗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불투명한 것이 아니라 속히, 바로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둘째로 천사의 증거의 내용은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고 했습니다. 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것은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계 1:3). 예수님의 재림은 아주 긴박하고 시급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주님은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천사로부터 정말 신비한 계시의 말씀을 듣고 너무도 감사해서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는 “나는 네와 똑같이 하나님의 종된 피조물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겸손하게 물리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참된 예배의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드리는 방법도 잘못된 것이 많습니만 더 심각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 인간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하한 경우에도 그것은 잘못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합니다.

2. 주님의 증거

(1) 다니엘서와 계시록 말씀의 차이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42절에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고 서로 모순된 듯한 이유는 첫째로 지금은 다니엘서를 기록한 이전사오백년 전보다 훨씬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인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마지막 때가 되면 7년 대환난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렇게 고통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감추어진 말씀을 펼쳐 공개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 그대로 되도록 그냥 놔두라고 하심
11절을 보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한 마디로 하면 그냥 내버려두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와 사탄의 씨가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빛의 자식들과 어둠의 자식들, 알곡과 가라지는 완전히 씨앗부터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누가 택함받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한 뒤에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실망하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긴박성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속히 오십니다. 오셔서 일한대로 갚아주리라고 하셨습니다.

(3) 두루마기를 빼는 자들이 복이 있음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빼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라고 했습니다. 두루마기는 겉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복입니다. 천국 잔치에는 예복을 입어야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기를 뺏아야 합니다. 죄악의 때가 문었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때는 어린양의 피에다 빨아야 깨끗이 다 씻감을 받습니다. 또한 에 두루마기는 의의 세마포 옷과 같은 성도들의 좋은 행실을 뜻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루마기를 뺏은 사람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은 천국 잔치에 참석하게 됩니다. 생명나무에 나가서 생명과를 먹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4) 성 밖에 남아 있을 사람들
15절에 보면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개들이란 개처럼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개가 더러운 것을 먹고 부끄러움도 없듯이 부끄러움도 없이 부정한 것을 하고 죄악을 밥먹듯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또 그 뿐만 아니라 술객들, 점치는 것 좋아하고, 토정비결이나 사주 관상보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 다 천국에 못갑니다. 그리고 행음자, 즉 음행하는 자들, 또 살인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천국에 못갑니다. 특히 여기서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이라는 것은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꿈에라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속히 다시 오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에 대해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하고 응답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정하고 이것을 꾸며대는 사람들, 예를 들면 진화론 같은 거짓된 학설을 가지고 인간을 마치 원숭이의 후손인 것처럼 말하는 이런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 밖에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3. 성령과 신부인 교회의 증거

(1) 성령과 신부의 초청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신부는 바로 교회 성도들을 뜻하는데 천국에 앞서간 성도들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오라고 초청합니다. 누구를 초청합니까? 첫째는 “듣는 자도 오라할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초청됩니다. 둘째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여기 목마른 자는 세상적인 목마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목마른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고, 하나님이 정말 만나고 싶고, 말씀이 그리워지고 하는 그런 영적인 목마름을 갖는 그런 사람에게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원하는 자는”, 또 원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원치 아니하는 사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천국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소원이 늘 있어야 합니다. 초청의 내용은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수를 받는데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무료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상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 계시의 절대성
18절과 19절에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수확, 하나님의 더하기와 빼기가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

께서는 하나님의 계시 외에 덧붙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덧붙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외에 물론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덧붙이는 물론교 신자들에게도, ‘성경 외에 원리강론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덧붙이는 통일교 문선명 일파들에게도, ‘66권 성경 말씀 이외에 외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덧붙이는 천주교 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있는 재앙을 덧붙여줍니다. 그리고 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께서도 빼십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신화 같아’, ‘이것은 아무래도 옛날에 있었던 우화 같아. 믿을 수 없어’ 하고 빼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 너도 내가 천국에서 빼버리지’ 하고 성경에 나오는 천국의 축복에서 빼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여기에다 가감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다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고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Maranata)’라는 말은 ‘예수님 다시 오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꿈에라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속히 다시 오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에 대해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하고 응답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요한계시록 강해를 끝내면서 그동안 수고했던 여러분 모두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뿐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애청하신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설립 42주년 기념 부흥사경회를 앞두고

윤종일
(목사, 충현기도원 지도)

교회설립 42주년을 맞이하여 귀한 축복의 잔치를 열게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42주년 기념 부흥사경회는 '95년 8월 28일(월) 저녁부터 31일(목) 저녁까지 3박 4일간 충현기도원에서 개최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자'라는 주제로 물금교회의 당회장인 임종만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집회시간은 매일 새벽 5시, 오전 11시, 저녁 8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사가 선지자를 통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사 55:3)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오셔서 시간시간마다 귀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현교회는 42년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하여 하나님께 영광돌리고 장로교에서 가장 큰 교회로, 민족의 교회로 우뚝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 교회에서 시무하시는 김영삼 장로님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이 나라에 고통과 아픔이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시점에서 42주년 기념 부흥성회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에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울 사람이 그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요, 충현의 성도들이 것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받고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 결단의 기도가 있을 때에 역사가 살아났습니다. 오늘 이 거대한 고층빌딩과 과학문명의 홍수 속에서, 황금만능주의의 세상에서 영적으로 이 나라, 이 백성이 허물어지고 침체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픈, 안타까운 눈물이 있습니까?

오! 성도들이여
우리 함께 민족의 제단, 은혜의 동산 충현기도원으로 모입니다. 모여서 3박 4일간 하나님의 큰 은혜, 축복된 장마비의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권면을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세상의 물결, 명예,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비참하고 절망적인 인생이 됩니다.

오늘 이 나라 이 민족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구원의 날의 기쁨이 넘쳐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수많은 목회자, 성도들의 땀과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 한국 교회는 축복을 받았고 성장해왔습니다.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면 쫓대를 옮기리라는 주님의 경고와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끝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은혜의 부흥성회, 기도하는 부흥성회를 마음으로 그리면서 이렇게 기도해봅시다.

오 주여!
말씀으로 충만하여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의 불길에 타오르게 하옵소서.

은혜로 충만하여 감사, 찬송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빈들에 바른 풀처럼 시들어진 영혼,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되어진 영혼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풍성히 받고, 새롭게 살고, 능력받아 가정울, 교회울, 사회를, 이 시대를 살리는 성도되게 하옵소서.

◀ 인도네시아 단기선교사역을 마치면서 ▶

충격으로 다가온 하나님의 사랑

오미경
<교회 사무국>

그렇다.

그건 바로 나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시고 섬세하시고
오묘하신지, 나에게 그 모두가 충격으로 가득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신다는 기막힌 사실을
어리석게도 이제서야 어렵듯이 안 것이다.

이곳(인도네시아)에서의 하루하루 시간시간이 나에게 많은
도전으로 다가왔고, 그 도전으로 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내가 바로 볼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시켜 주심에 감탄의 연속이 절로 나왔다.
늘 현실의 불평속에 있었던 난 얼마나 사치스런 고민에 빠져있던 나였던가!
수많은 수정작업의 태도에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이 그분의
사랑으로 바뀐걸까?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달을 수 있을까?

아니다. 난 아니 우린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을 듯 싶다.

그분의 사랑은 숫자로 셀 수도 자로 잰 수도 없음을 느껴본다.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우리 인간들의 무지한

지혜로는 계수하기 불가능함을 나 나름대로 단정지어 본다.

그걸 모르기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멀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더욱 안타까와 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우리에게.....

느끼고 싶다.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내 작은 신앙에 충격으로 크게 눈을 뜰 수 있게 만들어 주신
황홀함에 나의 두발에서 흐르는 감사의 깊은 눈물은 멈출시간을
주질 않는다.

너무나 감사한 순간이기에.....

"젊었을 때 충성하라"고 하신 말을 상기시켜 보며, 나의 젊음의 땀을
아름답게 열매 맺어 드리고 싶다.

좀더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이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과 또 앞으로 내 길을 예비해주실

하나님께 이 큰 충격의 영광을 드린다.

충격!

그렇다.

그건 바로 나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감사해요, 하나님!

제5회 충현올림픽 표어공모 및 피켓걸 공개모집

오는 10월 3일(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에서 개최될 제5회 충현올림픽의 전 교인
참석 및 출전사기 양양을 위하여 표어를 공모하며, 당일 행사의 진행 질서를 뜻깊게
장식하기 위하여 피켓걸을 공개 모집합니다.

1. 표어공모

◆ 내용 / 간단 명료하면서도 제5회 충현올림픽 목적에 부응한 함축적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 표어말 수 제한 / 10자 이내로 하되 3행으로 할 것

◆ 공모기간 / 8월 27일(주일)까지 충현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국 총무과)

◆ 당선작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주고, 올림픽 표어로 사용한다.

2. 피켓걸 공개모집

◆ 자격 / ① 본 교회 등록교인으로 용모가 단정한 자(미혼)

② 신장 165cm 이상한 자

◆ 전형방법 / ① 1차: 사진(얼굴중심 명함판 1매, 전신사진 1매(정면))

② 2차: 실물 면접

◆ 사진접수 마감 / 9월 3일까지 <교구 추천도 가능함>

◆ 채용된 피켓걸은 제5회 충현올림픽 행사의 선두 피켓걸로 대우하며, 소정의 기념품을 준다.

◆ 사진 뒷면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교구를 표시할 것

주후 1995년 8월 13일

제5회 충현올림픽 조직위원회 홍보분과



▲ 인도네시아에서 1주일간 어린이성경학교를 마치고 1주일 동안 함께 생활한 꼬마들과 함께. 그곳의 어린이들은 회교 문화권의 영향으로 다소 엉뚱한 질문을 하기도해서 함께 간 우리 일행을 당황하게 하기도 했다.

토·막·소·식

◆ 유치부는 8월 20일(주일)에 성경 퀴즈대회를 갖기로 하고 열심히 준비중이다.

◆ 고등부는 오늘 고속터미널에서 노방전도를 실시한다. 고등부의 전도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12시 40분부터 실시한다. 또한 돌로스체육대회를 8월 14일(월) 오후 2:00에 양재시민공원에서 갖는다. 고등부 회원은 누구나 환영하며 돌로스 10개 학교도 필히 참석할 것을 바라고 있다.

◆ 대학부는 8월 20일(주일)에 여름 사역 결산보고대회를 갖는다. 주일집회 형식으로 진행되며 많은 감사의 기도가, 찬양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

◆ 새가족양육부는 성경읽기·쓰기 대회를 계속하여 실시중이다. 범위는 신약전권으로 기간은 9월 10일까지. 대상은 새가족회원, 양육위원이다.

◆ 소망부는 찬송가부르기대회를 8월 27일에 갖기로 하고 준비중이다. 지정곡은 93장, 502장, 539장 중에서 1곡을 택하여 부르면 된다. 여자 한 반과 남자

두 반이 한조를 이루어 열심히 준비중이다.

직원모집

본 교회 사무국에서는 참된 청지기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함께 일할 가족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경력직 : 여 0명

① 여상고를 졸업 및 졸업예정자

② 나이 : 19~21세 정도

영상직 : 남 0명

① 비디오키메라 촬영, 편집 유경험자

② 나이 : 20~23세 정도

자격 및 제출서류

각항 공히 세례교인으로서 본 교회 직원 복무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이력서 1부(사진첨부)
2. 교구목사 추천서(본교인) 1부
3. 당회장 추천서(타교인) 1부

제출처 : 중현교회 사무국(☎ 552-8200, 교 402)

제5회 중현올림픽 준비위원회 모임

오후 3시 30분, 갈릴리홀에서, 18일(금) 오후 6시 만나홀

오늘 오후 3시 30분 갈릴리홀에서 중현올림픽 조직위원회 전체 모임이 있다. 참가대상자는 지난 주일 <주간중현>에 게재된 중현올림픽 조직위원 전원

이다. 또한 8월 18일(금) 오후 6시에는 만나홀에서 중현올림픽 조직위원회 분과별 모임이 있다.

할 렐루야! 주님의 높으신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이곳 뉴질랜드에서는 온 성도님들의 끊임없으신 기도 후 원속에 이곳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보려고 두렵고 떨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든 고국 땅에는 찌는 듯한 삼복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고 수박 참외가 한창 어우러지는 여름철이라 생각됩니다. 이곳 뉴질랜드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울씨년스런 겨울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곳 선교지 소식을 주간중현의 형제 자매님들께 전해 올리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입니다만 이곳 사정이 너무도 분주하다보니 이제야 소식드림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성도님들의 너그러우신 용서와 양해를 구합니다.

얼마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비보를 접하면서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으며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에게 멀리서나마 옷깃을 여미어 경건히 조의를 표하며 모든 유족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비는 마음 간절합니다. 또 다시 이러한 처참하고도 불행한 사고가 우리의 조국땅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섬기고 있는 이곳 교회도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많은 이민자들과 성도들이 신앙안에서 안정된 정착을 이

선교지에서 온 편지 / 뉴질랜드 김형선 · 한영자 평신도 선교사



또한 제3차 예수사랑 큰잔치를 계기로 유학생 토요성경공부 외 장년 수요성경공부를 각각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루어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뜻이 계시어 이역만리 지구의 최남단 이곳 뉴질랜드로 보내시고 모든 환경을 허락하시어 교회의 지체로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주님의 크고 높으신 사랑에 최선을 다하여 늘 충성할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해 봅니다.

익숙치는 못하지만 큰딸 회정이가 올겐반주로, 둘째딸 남희가 쉐로로, 세째딸 현주가 피아노로, 조카딸 정은이가 비올라로 작은 오케스트라 팀을 구성하여 예배시마다 주님께 찬양을 수중들고 있으며 막내아들 우성이기도 클라리넷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장성한 조카딸애들도 유치반과 청년부에서 각각 맡은 바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으며 부족한 저희 두 내외는 장년 남반과 여반을 각각 섬기며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5일과 9월 20일에 이어 금년에도 저희 가정에서 지난 5월 6일에는 주님의 은혜로 제3차 예수사랑 큰잔치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유학생과 이민자 자녀들 39명을 초청하여 "세월을 아껴 하나님과 사람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즐거운 교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석한 모든 학생들이 이역만리 타국에서의 향수를 달래며 새로운 각오와 용기를 얻고 돌아갈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음을 감사 드립니다. 더욱이 모임시간 임박한 오후 시간에는 세차게 쏟아지던 빗줄기도 멈추게 하시고 오색찬란한 쌍무지개가 남쪽하늘에서 솟아올라 찬란케 하시므로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잔치임을 실감케 하였고 모인 우리들이 모두가 기쁨과 감사로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제3차 예수사랑 큰잔치를 계기로 하여서 지난 5월 13일부터 저희 집을 개방하여 유학생 토요성경공부(매주 토요일 오후 7시~9시, 12명 참석) 외 장년 수요성경공부(매주 수요일 오후 7시~9시, 8명 참석)를 각각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무쪼록 모든 어린 심령들이 주님의 말씀안에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힘든 유학생들과 이민생활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대한의 자랑감이 될 수 있는 자녀들과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앞날이 될 수 있도록 고국에 계시는 중현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적극적인고도 끊임없으신 기도의 후원을 바라면서 이



곳 저희 온 가족은 온 힘을 모아 오늘도 간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온 가족이 더욱더 열심과 정성을 다하여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마음속 깊이 다짐하며 또 노력하겠습니다.

다. 부족한 이곳 선교지 저희들을 잊지 않으시고 항상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중현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리오매 말씀 테임과 신앙행자를 매달 보내주셔서 큰 도움을 받게 하시는 교회와 선교위원회 그리고 박덕양 안수집사님을 비롯한 모든 집사님들의 사랑의 정성에 지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립니다. 또한 이번 예수사랑 큰잔치를 위하여 물질로 후원해 주신 김석윤 권사님과 한민수 집사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는 시간의 결정체임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십자가의 정병으로서 수고하시는 사랑하시는 중현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가정가정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충만히 차고 넘치기를 두손 모아 빌면서 다음 소식 드릴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1995.7.31 뉴질랜드에서

김형선 · 한영자 집사 드림